

불가리아, 아제르 가스 10억m³ 수입

아제르바이잔 나부코 가스관 건설 참여 타진 ... 에너지 협력 강화

불가리아와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3월10일 아제르 수도 바쿠를 방문해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불가리아가 앞으로 매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10억m³를 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아제르바이잔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제르의 나부코 가스관 건설사업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가스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6년 6월 건설기로 합의한 나부코 가스관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의 가스를 터키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장 3300km에 건설비용이 5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주체인 나부코 가스관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상태며, 장기적으로는 아제르와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도 나부코 가스관에 유입되게 할 계획이다.

나부코 가스관은 2010년 착공돼 3년 후 가동될 것이라고 컨소시엄은 최근 밝혔다.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과 불가리아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지지하는 부르가스(불가리아)-알렉산드루폴리스(그리스) 송유관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산 원유를 유입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총연장 280km의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은 흑해에서 에게해로 원유를 공급하게 된다. <저작권자유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2>